



2017년 3월 26일(제816호) 시순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보는 능력; 시력(視力)”

창세기에는 야훼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 2,25)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창세 3,7)고 전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남자와 여자가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 열매를 하나 따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에 열린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두렁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 하느님 앞을 피하고, 심지어는 야훼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기까지 합니다(창세 3,8-10 참조). 알몸인 상태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의 상태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라는 범죄의 시작 다음에는, 알몸이기에 하느님 앞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본 것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습니까? 나의 눈은, 시력은 정상입니까? 인체의 감각 중의 하나인 시각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나의 눈으로 본 것은 확실한 사실이 맞습니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깨비도로와 같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와 다른 ‘착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착각은 자유이지만, 착각으로 인한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는 않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만 눈이 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일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빛 외에 또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우리 눈은 믿음의 약을 발라 회복되어 빛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 주실 때 먼저 당신의 침과 흙을 섞으시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담 때문에 눈먼 자로 태어났으므로 주님께에서 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침과 흙을 섞으셨습니다. 즉 “말씀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움터 나오리라.” 하는 예언에 따라 그분은 침과 흙을 섞으셨습니다. 그분은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바라볼 때 그 진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누가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요한복음 주해’(Tract. 34,8-9; CCL 36,315-316)에서



신기훈(그레고리오) 신부
통해(해군 제1필대)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1사무 16,17르코버.6-7.10-13나
-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제 2 특 시** 예페 5,8-14
- 복음 권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 복 음** 요한 9,1-41<또는 9,1.6-9.13-17.34-38>
- 영 성 제 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진리를 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송의 두 번째 말마디(eleison)는 신의 자비를 간청하는 외침입니다. 소경과 절름발이, 나병환자와 죄인들이 한때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간청했으며 주님은 당신을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듯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신뢰 하면서 그분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상당히 애매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키리오스)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사도 2,36) 라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키리오스, 곧 주님이 되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키리오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로 획득한 영광과 왕좌에 좌정하신 왕,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버지 하느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의 머리시요 영광 중에 계신 왕이시며 주님이신 키리오스,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그분께 경배하여 청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리에”는 근본적으로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간청하는 애소(哀訴)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죄인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여기 계심을 환호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밝고 힘차게 바쳐야 하며 기쁨과 존경을 동시에 표시

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흔히 이와는 정반대되는 기분으로 이 기도를 바칩니다. 중세기의 우의적 해석에 따르면 이 기도는 구약시대,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시기(待臨時期)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으로 노래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기도는 순서상으로 참회의 예절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마치 죄를 고백한 다음 용서를 비는 기도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송을 노래로 작곡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단조가 아니라 장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사경본은 통상적으로 공동체가 자비송에 함께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찬미는 깊은 겸손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청원은 자연적으로 그를 들어 줄 사람에 대한 신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청원은 모두 우리 자신이 향하고 있는 그분께 드리는 찬미입니다. “키리에” 노래가 청원을 담고 있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청원은 승리자시요 왕이시며 죄악과 죽음을 쳐 이긴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찬미인 것입니다. 미사 전례 시작에 하는 우리의 이 인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분의 현존에 대한 기쁜 환호성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자비송은 일반적으로 각각(Kyrie, Christe, Kyrie) 두 번씩 노래합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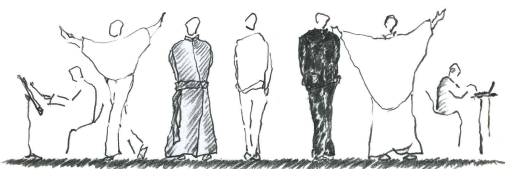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너는 내게 사랑이다.

무얼 하던,
무얼 입고 있건
너는 그냥
내게
사랑이다.

안심하여라.
걱정하지마라.



상화이야기

<시막 속의 프란치스코>, <오상을 받는 프란치스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기적은 왼쪽 하늘을 가르는 빛의 형태로 조용하게 일어난다. 천둥이나 번개, 그리고 어떤 대단한 소란 없이 이 모든 것이 조용하게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동물과 별 볼일 없는 직업의 목동이다.

그러나 그림 왼쪽 아래 메마른 나뭇가지에 화가는 자신의 이름을 작게나마 그려 넣었으며, 이를 통해서 본인이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증인과도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그림을 본 동시대 인물들은, 비록 몇백 년 전 일어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생과 기적이 마치 오늘 내 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꼈다.

매일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 사소한 기적은 우리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그림처럼.

벨리니 (1430-1516)
1480년 작,
패널 위 유화, 124.6 X 142 cm
프릭 컬렉션 미술관, 미국 뉴욕

김은혜(벨리시빛)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시순 제4주일: 성비실리오 최승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레바논 파병미사
때: 3월 28일(화) 18:30, 국제평화지원단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리” (마르 16,15)